

생애의 빛



성경 공부 지침서

생애의 빛 성경 공부 지침서

(C) 1998. 이 책의 저작권은
멀린 비어맨과 계시록 출판사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배포 가능 조건

저희는 이 지침서를 당신이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중에 책임을 묻게
되시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조건 하에 저작권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PDF 파일로 저장되거나,
인쇄해 다른 이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이용과 내용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으며,
본 저작권 문구도 모든 사본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RevelationPublications.com
PublisherForGod@gmail.com

글 인용 생애의 빛, E.G. 화이트.
성경 공부에 적응하는 법, 멀린 비어맨
삼화 - 저스틴 크리에이티브
그룹 남파 ID www.goodsalt.com

문답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소유이며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허가를 받고 사용하였음.

목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 1 - 1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들 - 2

우리의 상황을 알아가기 - 3

회개 - 4

고백 - 5

헌신 - 6

믿음과 받으심 - 7

제자되는 증거 - 8

영적 성장 - 9

사업과 생애 - 10

하나님을 알게 됨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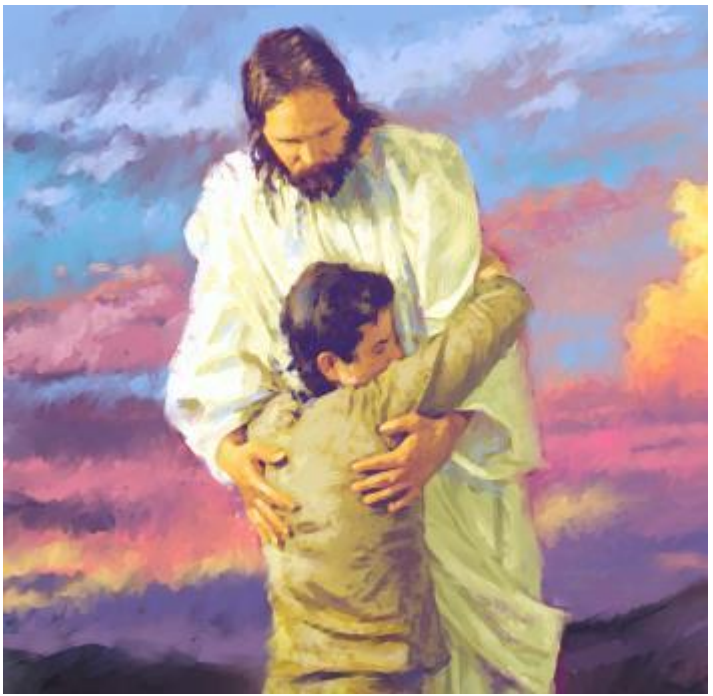
기도의 특권 - 12

기도의 힘 - 13

의심을 극복하는 길 - 14

주님 안에서 기뻐함! - 15

현재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기쁨 - 16



1 강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1)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시편 145:15-16 개역한글)*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주신다. 천연계의 기묘하고 아름다운 사물들을 바라보라. 그것들이 우리의 필요와 모든 생물들의 행복을 채워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라. 햇빛과 비는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산과 바다와 들은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해 준다. 그분은 온갖 생물들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2)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1서 4:16 개역한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하고 행복스럽게 창조하셨다.
지구는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될 당시에
아름다웠다. 망쳐졌거나 죽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그분의 사랑의
율법에 불순종하였다. 불순종은 죽음과
슬픔을 초래하였다. 죄가 고통을
자아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여전히 나타내셨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고
말한다(창세기 3: 17). 그분은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자라도록
허용하셨다. 그분께서 시련과 고통을
허용하셨으므로 사람의 생애가 수고와
걱정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
고통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죄가 빚어낸 수치과
과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죄 많은 세상은 슬픔과
고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연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전해준다. 꽃들이 잡초 속에서
피어나고 장미가 가시나무를 덮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돌아나는
풀잎마다 기록되어 있다. 예쁜 새들이
행복하게 부르는 노랫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해 준다.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말해 준다.
숲속의 키 큰 푸른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준다.

(3) 하나님은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 7:18-19 개역한글)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였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리라고 대답하셨다(출애굽기 33: 18, 19; 요나 4:2).

하나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많은 사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붙들어 매신다. 그분은 천연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그분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지는 못한다.

(4)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신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하는 바를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미가 7:17 개역한글)

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을지라도 선의 원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감으로 대하고 그분을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생각하기를 원한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을 동정심이 없는 냉혹한 재판관처럼 생각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사단은 창조주께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언제나 그들의 실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심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기를 원하셨다.

(5) 인류는 죄를 선택함으로 어떤 귀중한 특권을 잃게 되었는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18 개역한글)

(6)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7 개역한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하늘에서 오신 것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하고 말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4:8, 9).

(7) 예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18-19 개역한글)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병든 모든 자들을 고쳐 주셨다. 고통의 부르짖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마을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시며 모든 병자들을 고쳐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업은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사랑, 자비, 동정이 예수님의 생애의 온갖 행동에 나타났다. 그분의 마음은 인류를 위한 따뜻한 사랑으로 젖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류를 도와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던 것이다. 아무리 가련하고 비천한 자라도 그분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도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다. 아이들은 그분의 무릎 위에 올라 앉아 인정 많고 애정 어린 그 얼굴을 쳐다보기를 좋아했다.

(8)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본인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개역한글)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온화하고 친절하고 인정 깊으신 분이였다. 그분은 결코 무례하지 않으시고 함부로 가혹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떤 삶에게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거짓과 불신과 죄를 꾸짖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에는 슬픔이 스며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구주를 배반하였지마는 그분은 그들을 따뜻한 동정심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가족의 각 사람을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 모두를 구원받아야 할 죄 많은 사람들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생애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나타내준다. 그분의 생애는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늘의 사랑의 강물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내린다. 자애로우시고 긍휼하신 구주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딤후 3:16).

(9)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어떤 처우를 받으셨는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3-5 개역한글)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간고를 많이 겪은

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의 영광에서 떠나 죄로 손상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하나님은 죽음의 그늘로 어두워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아들을 당신의 곁에서 그리고 천사들의 경배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통과 수치와 증오와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보라! 광야의 예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십자가 상의 예수를! 거기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몸소 지셨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그는 죄가 빚어놓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서운 분리를 느끼셨다.

(10) 예수님께서서는 통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말을 외치셨는가?

*제 구 시 즘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46 개역한글)*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을 분리시키는 무서운 죄의 흉악성을 느끼셨다. 죄의 무게가 그분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11)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땅에 보내신 근본적인 두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개역한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19
개역한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된 것은 아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즐겨 구원하실 마음을 가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요한복음 3:16).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에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겟세마네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값을 치르셨다.

(12)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하는 그분의 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께서는 어떻게 답하셨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19
개역한글)**

그 말은 이런 뜻이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린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너 대신 죽었다.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전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므로 공의롭고 의로우시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속하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오직 아버지와 일체이신 그분만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아셨다. 오직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만이 죄인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 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요 3:16).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사람들과 함께 생애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13)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11 개역한글)*

그분은 하나님과 일체이셨다.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니하”신다(히브리서 2:11).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제물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이며, 인성을 쓰고 당신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계신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 중 하나가 되실 것이다. 그분은 인자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의 파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하고 거룩한 생애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신다.

(14)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1서 3:1 개역한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크신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런 큰 희생의 대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 줄 것이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았다. 그는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하고 말했다(요하일서 3:1).

(15)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2 개역한글)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사단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돕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그분께 속할 때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된다.

그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없다. 하늘 왕의 자녀! 귀중한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관하여 생각하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 준 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알게 된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공의를 알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따뜻한 동정심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본다. 그것들은 불효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자애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과 모든 피조물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심에 감사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중한 아들을 보내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연민을 알게 되었으며,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차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셔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맹인을 보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목숨을 내어 주심에 놀라움으로 가득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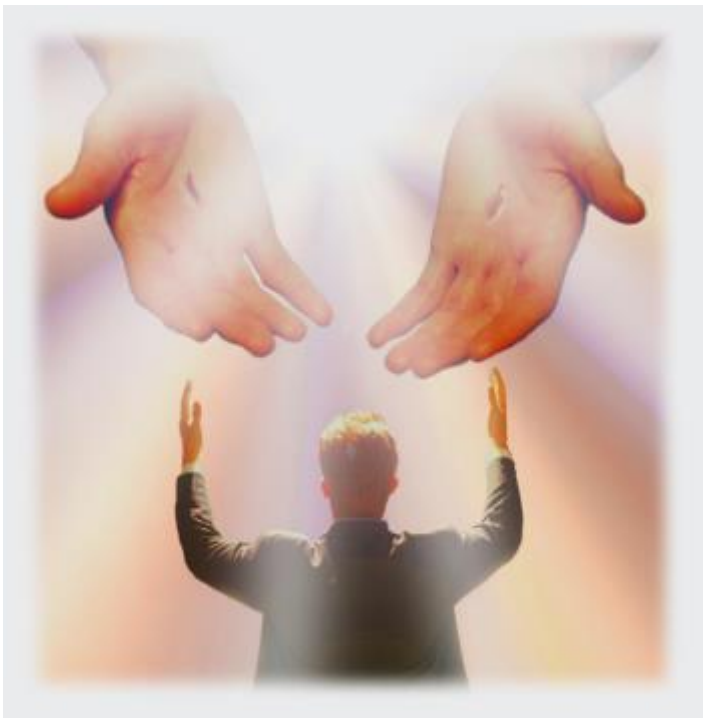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illegible]



2 장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들

(1)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께 복종할때 얻을 수 있는 능력엔 어떤 것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시편 111:10 개역한글)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했으며, 또한 그분의 길을 따랐다. 그들은 순결해지기를 원했고 그들의 목적은 거룩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자 그들의 사상이 바뀌어졌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를 대신했다. 죄가 그들을 너무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악의 세력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사단의 종이 되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영원히 사단의 종이 되었을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당시에 가지셨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다. 그는 이 세상이 죄와 죽음으로 가득해 지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데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려 했다.

(2) 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으로 부터 숨게 되었는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0 개역한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살 때 그들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뻐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3).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자 그들은 성화의 과정에서 어떤 행복도 찾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숨어 버리고자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마음속에 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숨어 버리고자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3)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을 가지지 않은 이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요한계시록 6:16 개역한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천사들을 피해 가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나라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서 행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에는 이타적 사랑이 지배한다.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죄인의 마음에서는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죄인의 사상과 길은 그로 하여금 하늘에서 이방인을 만들 것이다. 죄인은 거기서 사는 죄 없는 사람들과 매우 다를 것이므로 그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하늘의 빛과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외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거기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제외된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죽기를 바란 나머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4) 죄인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킬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농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욥기 14:4 개역한글)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이 죄에 물들어 있으며 우리는 이를 바꿀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로마서 8:7).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기 적당한 구실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해 줄 수 없다. 오직 위에서부터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를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사랑만이 새 생애를 가져다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하고 거룩하게 해 준다.

(5)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의 삶속에서 무엇이 일어 나야만 하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3 개역한글)*

구주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3)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마음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새생애를 하고자 갈망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들 속에 이미 존재해 있는 선을 계발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끌고 갈 거짓말이다.

(6)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10 개역한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린도전서 2:14).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요한복음 3:7). 그리스도께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4).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12).

(7) 왜 우리는 의로움에 대해 알게 되고 나서도 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14 개역한글)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애정과 아버지다운 자비를 안다. 우리는 그분의 율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의롭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사랑의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로마서 7:16,12).

바울은 순결해 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쫓아내랴”(로마서 7:24)고 부르짖었다. 이 슬픔의 절규는 각 나라와 각 시대의 번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터져 나왔다.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의 대답이 주어져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요한복음 1:29).

(8) 죄인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5 개역한글)

하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 진리를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 주기를 원하신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 에서에게 속한 축복을 빼앗은 후 집을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단신으로 그의 가족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생각이 다른 모든 것보다 그를 더욱 괴롭혔다. 그는 자기의 죄가 그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하늘에서 버림받게 했다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야곱은 슬픔을 안고 맨 땅에 누워서 자게 되었다. 그의 주변에는 쓸쓸한 언덕들만이 있었다. 하늘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이 박혀 있었다.

그가 자는 동안 그는 꿈속에서 주위에 밝은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누워 있는 곳에서 하늘 문까지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한 사다리가 나타났다.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야곱은 영광의 빛이 있는 맨 위에서 위로와 소망의 기별을 전해 주는 한 음성을 들었다. 그 방랑자는 그것이 그의 진정한 소원을 응답해 주는 하늘의 기별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의 구주를 보았다. 야곱은 죄인 된 그가 다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요한복음 1:51).

(9)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6)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에서 떠나갔다.
죄가 이 세상과 하늘을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은 하늘과
다시 연결 지어졌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천사들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다. 그분께서
연약하고 죄 많고 속절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가게 해 주셨으므로 그들은
무한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과 다시
접촉하게 된다.

(10) 우리 스스로를 타락함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왜
실패하였는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8-9 개역한글)

무엇인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꿈은 하늘의 도움 없이 결코 성취될
수 없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로서
내려”온다(야고보서 1:17).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완전한
품성을 주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의 길은 그리스도이시다.

(11)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천국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26)

하나님께서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깊은 동정과 사랑을
가지신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어떤 능력보다 강하다.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선물을
통하여 온 하늘을 우리에게 쏟아 놓으셨다.
하늘에서는 모두 하나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애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와 성령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활동하고 계신다.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위대한
희생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하늘이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상을 생각해 보라. 의인들은
하늘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영원한 미래를 통하여 정신과 마음과 몸이
계발될 것이다. 그들은 천사들과의 교제를
즐기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사랑을
같이 나눌 것이다. 분명히 그 상급들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에게 바치게끔 우리를 고무시켜
준다.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멸하실 것이다. 죄는 품성을
파괴시키고 영원한 죽음을 가져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경고한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자. 그분께서 그 이상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던가? 우리를 것처럼
사랑하신 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사들과의
우정을 회복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어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때
그분의 권능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불복종함의
결과로, 우리는 약해져 하나님의 개입
없이 사탄과 악에 저항할 수 없게되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이 변절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으로
부터 분리되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본인의 무능함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위한 계획에
감사드린다. 나는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제안을 받아드리고자 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3 강 우리의 상황을 알아가기

(1) 어떻게 우리 죄인들은 죄로부터
정화될 수 있는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38 개역한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죄 된 사람들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 37)라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너희가 개하여...죄
사함을 얻으라”고 대답했다(사도행전
2:38). 그는 다시 며칠 후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대답했다(사도행전 3:19).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자기들에게 고난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의 비행을 고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회개하라고 말해주는 그 방법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만 죄가 그들에게 가져다 줄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지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에서는 그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과 재산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을 후회했다. 발람은 그의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았을 때 두려워했다. 그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거나 그가 하고자 계획한 일을 가증이 여기지도 않았다. 가룟 유다는 그의 주님을 죽이고자 작정한 자들에게 그분을 팔았다. 그리고 그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고 부르짖었다(마태복음 27:4).

이 고백은 벌이 무서워서 그의 죄 된 마음에서 불가불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서 죽게 한 데 대하여 절실하고 가슴이 터질 듯 한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배반한 것을 진정으로 후회한 것이 아니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죄를 지었노라고 자발적으로 말했다. 그는

더 큰 고통과 손실을 면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고통이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슬퍼했으나 죄 자체를 슬퍼하진 않았다.

(2) 예수님께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구절을 통해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9 개역한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굴복할 때 양심이 각성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신성하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온 생애에 관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율법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안다.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다(요한복음 1:9). 이 빛은 마음의 은밀한 곳을 비추어 주고 숨은 생각을 드러내 준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죄 많고 부정한 그대로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성결(聖潔)의 미(美), 그분의 순결의 기쁨을 본다.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과 다시 대화하기를 원한다.

(3) 다윗 왕과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죄에 관해 회개하기 위해선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하는가?

...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1-4 개역한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10 개역한글)

큰 죄를 지은 후에 드린 다윗의 기도는 그의 진정한 슬픔을 알려 준다. 그의 회개는 진지하고 철저했다. 그는 그의 잘못을 적게 보이게 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한 일의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의 죄가 크다는 것과 그의 마음이 불결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증오했다. 그는 용서는 물론 정결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했다. 다윗은 성결하게 되는 기쁨을 얻기를 바랐다. 그는 하나님과의 조화를 회복하기를 원했다.

그와 같은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4) 진정한 회개로부터 나오는 뇌우침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시편 32:1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이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회개가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길을 준비해 준다고 믿는다. 사람이 용서받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직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만이 구주의 필요를 느낀다. 그렇다면

죄인이 회개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가? 회개는 죄인과 구주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죄인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고 말씀하신다.

(6) 죄를 향한 증오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30-31 개역한글)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람을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이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사도행전 5:31).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께 용서받게 해 주신다.

모든 건전한 욕망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를 증오하게 해 줄 수 있는 유일의 분이시다. 진리의 순결을 갈망하는 모든 욕망은 그분에게서 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된 형편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심을 알게 된다.

(7) 주님은 회개함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구를 그분께 인도하고 있는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2:32 개역한글)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이해하게 된다. 그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해 준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실 때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을 받고 죄를 슬퍼하게 된다.

때때로 죄인들은 그들의 죄 된 생활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들의 나쁜 습관을 어느 정도 버리고자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옳은 일을 하고 싶은 진실한 욕망을 일으켜 주고 그들의 생활을 변화되게 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분의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을 각성시켜 주고 그들의 생애에서 결함들을 제거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이끄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쳐다보게 하며 그들의 죄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그들의 양심에 번민이 생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죄들의 진상을 사실대로 깨닫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한다. 그들은 부르짖는다. “죄가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야 했는가? 이 모든 사랑과 고난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구되었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님께 이끌려 가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

만일 그가 저항하지 않으면 그는
그분에게로 이끌려 갈 것이다. 그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난을 준 죄를 회개할
것이다.

(8) 세상에서 주는 기쁨으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은 어떤
엄청난 초대를 하셨는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데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17 개역한글)*

천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에 대한 큰
욕망을 그들에게 주신다. 세상의 사물이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은혜와 성결의 기쁨을
갈망하도록 이끄신다. 오직 그것들만이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줄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께서 주실 무한한
축복 속으로 이끌고자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자 세속적 쾌락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의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오라 하시는데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계시록 22:17)고 초청하신다.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원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런 욕망을
불러일으켜 이를 통해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분께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순결을
보여 달라고 구해야 한다.

(9) 그리스도의 성품을 볼 때, 우리 죄인들은 무엇을 느끼게 될 수 있는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파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이사야 64:6 개역한글)

구주의 생애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 준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利他的)이고 부드러웠다. 우리는 우리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오는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가 얼마나 죄스러운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 자신의 생애는 완전하고 자신의 품성은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다. 그는 일반 죄인처럼 와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역시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생애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되면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생애의 모든 행동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의가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켜 마침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게 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한 줄기의 빛은 우리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리스도의 순결은 우리의 생애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그것은 품성의 모든 오점과 약점을 밝히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의 악한 욕망과

우리의 불성실한 마음과 우리의 더러운 말을 나타내준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흠 없는 품성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악습을 증오하게 된다.

(10) 다니엘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니엘 10:8 개역한글)

선지자 다니엘은 하늘에서 그를 찾아온 한 천사를 대면했다. 그는 천사의 주위에서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니엘은 그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생각하고 압도당했다. 그는 그의 경험을 위의 절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마음의 순결을 찾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기를 원할 것이다.

(11)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올려야 하는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9 개역한글)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의에 관하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빌립보서 3:6)고 기록하였다. 바울은 율법에서 말한 바에 비추어 볼 때

자신에게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시는
것처럼 율법의 깊은 의미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았다. 그는 겸비해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바울은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지 깨달았을 때 죄가 무서운 것으로
보였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께 대해 알게 되고 내 영혼을
쉬게 해주신다는 그분의 초대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에 따라, 나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며, 그분의 공정함과
경건하지 못한 나의 불완전함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지만, 내 혼자만의
힘으로 바뀔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무능력하고, 죄인이며,
그분 없이 힘없는 나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그분께서 내 인생에 가져다주실
변화들에 대해 믿는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4 장 회개

(1) 다음 구절에서 언급된, 하나님께서 특히 미워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8:13 개역한글)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죄를 동일하게 보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도 우리처럼 어떤 죄들은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신다. 어떤 잘못은 우리에게 작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작은 죄란 하나도 없다. 사람의 판단은 흔히 잘못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사실 그대로 보신다.

사람들은 술주정뱅이를 싫어하고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만과 이기심과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 등에 관해서는 흔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 거슬리는 죄들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너무나 반대되기 때문이다. 이타적 사랑은 하늘의 본질의 일부이다.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만은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한 많은 축복들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기 때문이다.

(2)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세리와 같이, 우리는 진정으로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하는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13 개역한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 기도를 한 세리는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으며 다른 사람들 역시 그를 그와 같이 보았다. 그는 구주의 필요를 느끼고 죄와 수치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왔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죄의 세력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한 바리새인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의 기도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닫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애와 비교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3) 죄를 깨닫고 나서도, 우리가 우리만의
노력으로 성스러움이란 열매를 맺을 수
없는것은 왜인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개역한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개선되기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오기에 충분하리만큼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선행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있다. 우리는 변화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우리가 좋지 못한 기질의
지배를 제어하게 되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

(4) 회개를 통해 의로움을 찾았으나,
나중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이들에게
죄가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에스겔 18:24 개역한글)*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과 자비를 갖고
계시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서

돌아설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죄 때문에 죽어 가시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 하나님 아들의 사랑과 고난과 죽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그 밖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생애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데 있다.

(5) 우리가 따라야 할 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21 개역한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서 죄인들은 때때로 다음과 같은 말로 그들 스스로를 변명한다. “나도 그들만큼은 선하다. 그들은 나보다 더 착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와 꼭 마찬가지로 쾌락을 좋아한다. 그들은 맘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들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데 대한 핑계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결함이 어떤 사람들의 변명의 구실이

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들을 모본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본으로 주어져 있다. 다른 사람들의 비행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보다 좋은 생활의 길을 보여줘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의 죄는 더욱 크지 않겠는가? 그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를 거부한다.

(6) 성령님의 목소리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결과는 무엇인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잠언 11:3, 5 개역한글)*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는 일을 지연시킬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순결한 마음을 구해야 한다. 수천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실수를 범해 왔다. 그리하여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상실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지체하고 죄악 속에 살기를 택하는 일에는 무서운 위험이 따른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지체할 때에 바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 죄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머물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큰 손실을 당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과실을 먹는 것이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믿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무서운 결과가 그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심지어

이 작은 일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변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있었다.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슬픔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결코 그치지 않는 부르짖음이 땅에서 올라가고 있다. 온 세상은 고통하고 있다. 하늘 자체도 우리 죄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 때문에 갈바리에서 돌아가셨다. 죄를 결코 작은 것으로 생각지 말자.

(7) 우리의 삶에서 죄에 굴복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잠언 5:22 개역한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돌아설 때마다 마음은 굳어진다. 그것은 우리로 그릇된 선택을 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굴복하지 못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거듭거듭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자비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사단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잘못되면 하나님께로 신속히 돌아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죄는 그들의 욕망과 습관을 바꾸어 놓고 그들의 품성을 썩 짓고 있다. 최악의 생애를 한 후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품성 속에 있는 하나의 그릇된 것이나 마음속에 간직한 하나의 죄 된 욕망까지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우리가 사단에게 양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멀리 떠나가게 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유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택한 결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악을 즐기는데 대한 솔로몬의 가장 무서운 경고를 읽게 된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잠 5:22)라고 그는 기록했다.

(8)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한 초청에 우리는 언제 답해야 하는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2
개역한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길을 강제적으로
택하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자 바랄 수도 있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그분께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남으로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3:7,8).

(9) 우리의 동기, 의도, 그리고 마음으로
부터 해방되기 위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23-
24 개역한글)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고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슬픔과 기쁨을 지닌 사람의 마음은 순수하지 못하다. 그 속에는 불결하고 부정직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임을 아신다. 우리는 죄로 더러워진 그대로 그분께 나가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펴 놓아야 한다. 우리는 다윗처럼 말할 수 있다.

우리 중 많은 수가 변화되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한다. 우리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시편 51:10).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생명 자체가 위험에 놓인 것처럼 이 일에 진지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소망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10)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회개에 다다르게 되면 얻을 수 있는 다섯가지 유익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15-17 개역한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기도해야 한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거룩하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브리서 12:14).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죄인지 우리에게 알려 준다. 그것은 구원받는 길을 분명히 지적해 준다. 우리는 주의깊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다.

(11) 그리스도께서 주는 회개라는 선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19 개역한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상을 사실 그대로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포기해서도 안 되며 소망 없이 살아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린도후서 5:19).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따뜻한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당신 자신께로 이끌고 계신다.

어떤 육신의 부모들은 오래 참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함과 실수를 이보다 더 오래 참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부드럽고 친절하게 죄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며 방황하는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모든 경고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12)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를 구하기 위해 이땅에 오셨는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1:15 개역한글)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큰 죄인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를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에 관하여 말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께서는 도와주신다.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디모데전서 1:15)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13)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는 누구인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43, 47 개역한글)

예수님은 시몬에게 두 빚진 사람에 관하여 질문하셨다. 한 사람은 그의 주인에게 작은 액수의 돈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매우 큰 액수의 돈을 빚졌다.

주인은 두 사람의 빛을 다 같이 탕감해 줬다.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어느 사람이 그의 주인을 더욱 많이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셨다. 시몬은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 받은 자이다”고 대답했다(누가복음 7:43). 우리는 큰 죄인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한히 고귀한 그분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가리어 주기에 충분하다.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자들이 그분을 가장 사랑할 것이다. 그들은 하늘에서 그분 곁에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무한한 희생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을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장 잘 알게 된다.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기 위하여 얼마나 멀리까지 손을 뻗으신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다. 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 진다.

내 구주와 가까워짐에 따라, 나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볼 수 있다. 나는 내 삶과 나의 성품이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진정으로 바란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렇다 결정 못했다

나는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회개하고자 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회개라는 선물에 감사하며, 나는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5 장 고백

(1) 우리 죄인들이 자비를 얻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13 개역한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길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어떤 길고 지루한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고난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누구든지

그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자비를 얻을 것이다.

(2) 우리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야 하는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16 개역한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하셨나이다(셀라)
(시편 32:5 개역한글)

우리는 피차간에 우리의 결함을
고백한다. 우리가 친구나 이웃
사람들에게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또
거리낌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웃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은 곧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브리서 4:15). 그분은
모든 죄의 오점을 씻어 버릴 수
있으시다.

(3)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

지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18 개역한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납하심을 받는
첫째 계단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진정으로 구한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미워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받기를 원치
않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평안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
유일의 이유는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의
법칙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다.

(4) 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가?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레위기 5:5
개역한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시인해야 한다. 우리는 부주의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자복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시편 34:18)고 기록했다.

참된 고백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만 고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혹은 그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공중 앞에서 어떤 죄를 고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고백할 때는 그가 범한 죄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5)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상 12:19 개역한글)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을 돌봐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주의 위대한 통치자에게서 떠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그들은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고 고백하였다(사무엘상 12:19). 그들은 그들의 고난의 요인이 된 바로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6)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드리실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용서를 위한 진정한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는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이사야 1:16 개역한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버리기 전에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실 수 없다. 우리는 생애에서 결정적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측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우리 앞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 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고린도후서 7:11).

(7) 가능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기분을 상하게 했거나, 갈취했거나, 혹은 물리적인 해를 가한 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에스겔 33:15 개역한글)

(8)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누구를 들며 변명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받지 않게 되었는가?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12 개역한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13 개역한글)

죄는 죄인으로 하여금 그의 품성이 얼마나 그릇되어 있는지 볼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 판단력을 둔하게 만든다. 그의 죄는 그에게 심히 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이 그의 눈을 열어 주지 않으면 그는 죄에 대하여 거의 눈먼 상태가 된다.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고백할 때 진지하거나 열렬하지 않다. 그는 그의 죄를 변명한다. 그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면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과일을 먹은 후 몹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다. 처음에 그들이 가진 유일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죄를 변명하고 죽음을 피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물어 보시자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를 비난했다. 그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고 말했다. 여자는 뱀을 비난했다. 그는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고 말했다(창세기 3:12,13). 그는 하나님께 “왜 당신이 뱀을 만들었으며 뱀이 에덴동산에 들어오게 했습니까?”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었다. 변명하고 싶은 욕망은 사단에게서 와서 모든 사람에게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서는 그 고백을 받아 주지 않으실 것이다.

(9) 세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았는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13 개역한글)

참된 회개는 사람으로 속이고자 하는
노력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해 줄
것이다. 그는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신
세리처럼 기도할 것이다. 세리는 하늘을
향하여 그의 눈을 들지도 못하고 기도했다.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10) 바울과 다윗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진정으로 고백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사도행전 26:10-11
개역한글)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3-4 개역한글)

진정한 회계의 예: 누가복음 18:13, 14; 15:18-21; 시편 51:3, 4; 사무엘하 12:13; 다니엘 9:3-12, 18; 예레미야 3:25

진정하지 못한 회계의 예: 창세기 3:12, 13; 사무엘상 15:22-26; 여호수와 7:19-21

우리는 성경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에 관하여 읽게 된다. 그들은 겸손했고 그들의 죄를 고백했다. 그들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변호하고자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 말했다. 그는 그 죄를 작게 보이게 하고자 애쓰지 않았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죄를 나쁘게 말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고 열렬히 말했다(디모데전서 1:15).

(11) 우리의 죄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이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얻게 될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1서 1:9 개역한글)

참된 회개로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그는 갈바리에서 지불된 값을 이해할 것이다.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는 죄인은 죄를 고백할 것이다. 그는 아들이

서슴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께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갈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회개라는 선물에
감사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나의 죄를 고백해 사함받고자 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자비를 얻기 위해선, 우선 나의 죄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가능하다면 나로 인해 해입은 이들에게도
고백해야 함을 알고 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공부하고, 그분과
가까워짐에 따라 나는 과거의 나의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기를 당하고, 혹은 물리적인 해를 당한
이들이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가능한 만큼 울바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그분의 보혈로 내가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저지른 수많은 죄에 대해
사함을 구하고자 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라는 선물을 주시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내가 다시
그분의 이름 아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6 장 헌신

(1)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아 29:13 개역한글)

우리는 다시금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하여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우리의 최악적인 마음은 본성적으로 그분에게서 떠나게 된다.

(2)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는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1 개역한글)

성경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것으로 묘사한다(에베소서 2:1 참조).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고쳐 주고 자유롭게 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새로운 욕망과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바치기 전에는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없다.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지금껏 있었던 가장 큰 싸움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그러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서 완전히 지배하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 없다.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음을 보여주는 사례엔 어떤 것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이사야 1:18 개역한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노예가 될 것으로 믿기를 원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맹종을 요구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은 물론이요 우리의 이성(理性)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하신다(사1:18).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순종하도록 강요되었을 것 같으면 우리의 정신은 활용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훌륭한 성품을 계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기계처럼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그분은 창조의

결작품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가능한 한 최상의 상태로 활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최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침으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끔 초청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택하여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4)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33 개역한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숭배한다. 그들은 재산에 대한 욕망과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단에게 붙들어 매여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갈망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칭찬해 주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염려에서 벗어나 안이하고 이기적인 생애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한다.

우리는 절반은 하나님께 속하고 절반은 세상에 속할 수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소유가 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5) 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8 개역한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고자 한다.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들은 올바른 품성을 계발하고 구원을 받고자 노력한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함으로써 얻는 감동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요구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생애를 하고자 노력한다. 그와 같은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 계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그분과 나누는 우정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해 준다. 우리가 그분을 생각함으로 자아는 잊어버린바 된다. 그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가장 적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게 된다. 우리는 구속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대로 하고자 애쓰게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 저절로
드리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6) 다음 구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과 수모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5, 7
개역한글)

교만한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납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전에 내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겠는가?”고 묻는다. 나는 그대에게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는 바이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그분은 하늘의
왕자였지마는 우리와 입장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얻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순결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도록 우리의 죄 된
마음을 그분께 드리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8) 우리는 모든 일을 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 일들을 행하면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개역한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간직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다. 나는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들을 위해 간직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금지하시는 길을 갈 때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오히려 좋지 못하다. 죄의 길은 고통과 죽음의 길이다.

(9)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할때,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로써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4-5 개역한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기를 좋아하신다고 생각지 말라.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 중 아무에게서도 기쁨을 빼앗아 가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습에서 돌아서도록 요구하신다. 그분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과 하늘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을 아신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신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당신의 피로써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짐을 즐겨 지고 당신의 사업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의 욕망을 채워 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께 오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큰 행복으로 이끌어 줄 일만을 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신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기쁨은 영광의 소망되신 그리스도를 생애에 소유하는 것이다.

(10)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개역한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그분께 바치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능력은 약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악적인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들의 약속은 썩은 새끼줄 같아서 쉽게 끊어진다. 그들은 자신의 사상과 욕망을 지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약속을 지킬 수 없으므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정신의 진정한 효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택력은 생애에 있어서 지배력이다. 모든 것은 이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택력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임의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힘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다. 그분께서는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의 온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사상은 그분의 사상과 같아질 것이다.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욕망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바라고 욕망하는 중에 잃어버린바 될 것이다. 그들은 마음의 힘을 하나님께 즐겨 굴복시키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택하지 않는다.

(11)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의지와 삶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바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개역한글)*

전적인 변화는 선택력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생애에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시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는 새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사탄이 보이고자 하는 바와 달리,
하나님의 정부는 맹목적인 복종이나
비이성적인 지배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나의 창조주께서 그분의 사랑과 고통,
그리고 전부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음에 감격하였으며, 내 인생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열망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사탄이 내 의지를 조종할때, 나는
나의 생각, 충동, 애정을 조절할 수 없으며,
선을 향한 나의 약속과 계획은 썩은 밧줄
같이 끊어짐을 깨닫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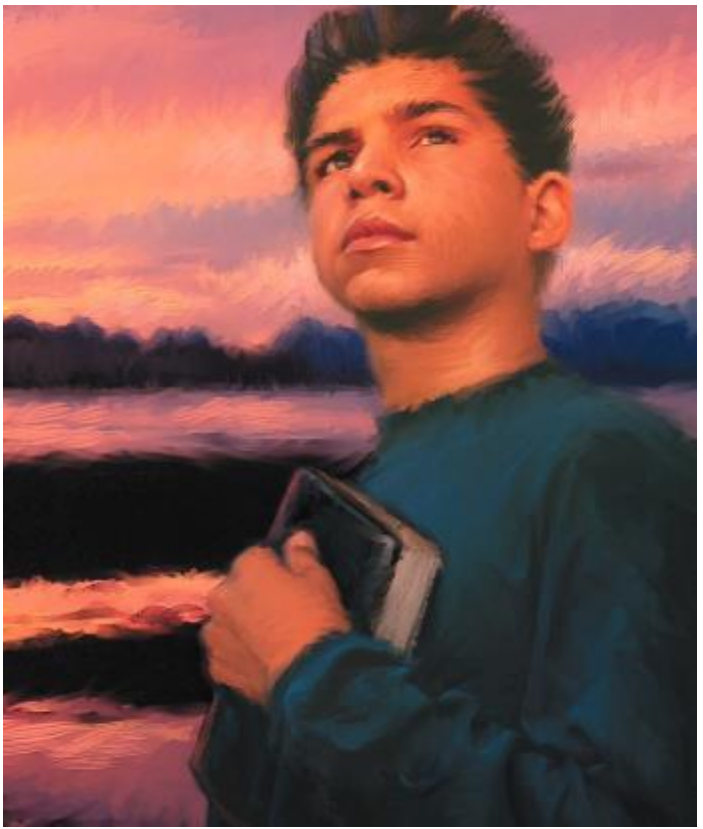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에게
강요하지 않음에 감사한다. 나는
그분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바칠 수 있도록 초대함으로,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성품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심에 기쁘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이제 의지의 힘에 대해 분명히
이해했으며, 선택력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내 의지를 그리스도의 영께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7 장 믿음과 받으심

(1)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합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커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에 따라, 우리의 죄악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그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밋게 보리라.
(에스겔 36:31 개역한글)*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이 옳으며 그른가를 말씀하시고 그대에게 알려 줄 때 그대는 죄의 악함과 그 세력을 깨닫게 된다. 그대는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죄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를 하나님과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악의 세력이 그대를 노예로 만들었다. 그대가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그대는 자신이 속수무책임을 더욱 많이 깨닫게 된다. 그대는 그대의 생애가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대의 마음은 깨끗지 못하고 그대의 욕망은 순결치 못하다. 그대는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그분과 같아지기 위하여 그대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2) 주님은 용서와 평화의 생명수를 누구에게 나누고 계시는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1 개역한글)*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 곧 하늘의 용서와 평화와 사랑이다. 돈으로 그 평화를 살 수 없다. 학문이 그것을 줄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지혜가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없다. 그대가 하는 일을 통하여 이 평화를 받고자 결코 희망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평화를 그대에게 선물로 주신다. “돈 없는 자도 오라”(이사야 55:1). 만일 그대가 손을 뻗어 취하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된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이사야 1:18).

(3) 평화를 구하는 우리에게 약속된 위대한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26 개역한글)*

그대는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대의 마음에서 버렸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분께로 가서 그대의 죄를 씻어 달라고 구하라. 그대에게 새 마음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것으로 믿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의 것이 된다.

(4)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표적과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개역한글)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 주자 그들은 그분께서 다른 면에서도 그들을 도와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사해 주는 그분의 능력을 믿게 해 주었다.

(5)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마가복음 11:24 개역한글)

예수님께서 병자를 어떻게 고쳐 주셨는지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를 읽어보라. 죄의 사함을 위해 그분을 믿는

방법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배우라.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던 환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었다. 그는 38년 간 걷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 그
환자는 “주님 만일 당신이 나를 고쳐
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는 완전하게 나은 것을 믿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걸어가고자
했다. 그는 걷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동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다.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

(6) 우리의 노력만으로 마음의
성스러움에 다다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예레미야 17:9 개역한글)*

그대 역시 죄인이다. 그대는 그대의
과거의 죄를 도말하고,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대의 생애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해 주시기로
약속하신다. 그 약속을 믿어라.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서는 그대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 주실 것이다. 그대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대는
깨끗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으로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걸을 능력을
주셨다. 그대 역시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대는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7)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때, 우리는 이 용서를 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11 개역한글)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18,19). 그대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대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다. 그대는 하나님 가족에 태어난 어린 아이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대를 사랑하신다.

이제 그대 자신을 예수님께 바쳤으므로 결코 되돌아가지 말라. 그대 자신을 그분에게서 다시 취해 가지 말라.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분께 바쳤다”고 말하라. 그분께서 당신의 성령을 그대에게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써 그대를 지켜 주시도록 구하라. 그대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다. 꼭 같은 방법으로 그대는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한다.

(9)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로 오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개역한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변화된 증거를 주님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바로 그 축복을 구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약점을 정복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죄에서 돌이킬 수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대가 죄 많고 속절없고
궁핍한 현실 그대로 당신께 나오기를
좋아하신다. 그대는 어리석고 연약한 상태
그대로 나와서 죄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팔로 그대를
두르시고 그대의 상처를 고쳐 주시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정결하게 해 주기를 원하신다.

(10) 하나님께서 모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네 허물을 뼉뼉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22
개역한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지 않는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를 위한 것이다. 그 약속들은 자기
죄를 슬퍼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신다. 가장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강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그의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깨끗한 의의 흰
옷을 입혀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가 살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

(11) 우리가 하난미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에 이른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10-12
개역한글)*

하나님은 인간들이 피차간에 대하는
방법으로 그대를 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 동정심을 가지고
그대를 생각하신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이사야 55:7). “내가 네
허물을 뵈뵈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22).

주님께서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고
말씀하신다(에스겔 18:32). 사단은
하나님의 복스러운 약속을 빼앗아 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는 그대에게서
모든 희망과 모든 빛을 뺏어 버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대는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된다. 사단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12)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길 잃은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께로 돌아갈 때
어떻게 환영하시는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 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촉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20 개역한글)*

나에겐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비록 내가 그분의 사랑에서
돌아섰고 그분의 축복을
낭비하였을지라도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할 것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한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완전히 말해 줄
수는 없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예레미야 31:3).

아버지는 그 죄인이 먼 나라에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계신다. 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열망할 때 그대는 그분께서 부르시고 계신 것을 안다. 하나님의 영은 죄인을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데려오고 있다.

(13)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37 개역한글)

그대 앞에 성경의 풍성한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이 그의 죄에서 돌아서고자 할 때 예수님 발 앞에서 환영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은 버려라.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생각을 품는 것보다 그대에게 더 큰 손해를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그분 자신을 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의 나라에서 그들이 영원히 축복받기를 원하셨다. 그 이상 더 힘 있고 부드러운 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말하실 수 있었겠는가? 그분께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이사야 49:15).

그대가 만일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위를 쳐다보라. 예수님께서서는 그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대를

위한 그분의 죽음이 그분께서 지불한 대가에 합당하도록 기도하라. 성령께서 오늘 그대를 초청하신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축복을 받으라.

그분의 약속들을 읽어 보라. 그 약속들은 그분의 사랑과 동정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무한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다함이 없는 긍휼로 죄인을 향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에베소서 1:7). 하나님이 그대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그분은 그대의 생애를 변화시켜 당신의 완전한 생애와 같이 만들고자 원하신다. 그대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가지고 그대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14)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약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15 개역한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브리서 13:5 개역한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에 따라, 나는 그분의 영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3:20).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구세주가 필요한 길 잃은
죄인임을 깨달았다 (로마서 3:23).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보내 우리를
파멸에서 구원하셨음에 감격하고
(요한복음 3:16, 17) 나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예수님임을 깨달았다
(요한복음 10:9).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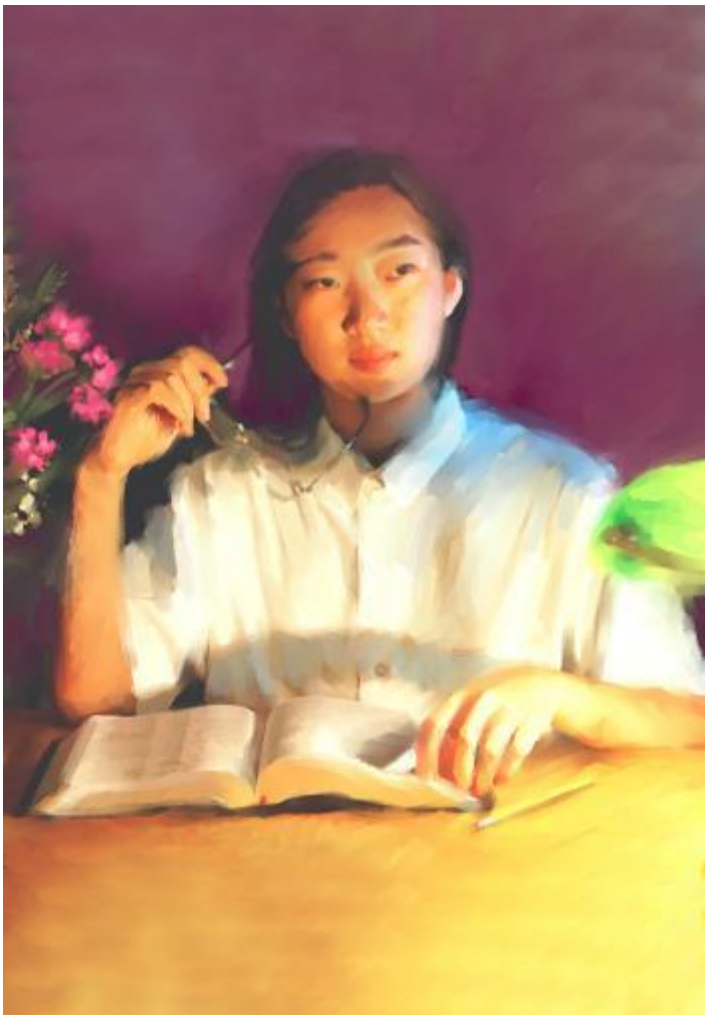
나는 내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악을 씻어냄을 믿는다 (요한1서
1:9).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만일 여러분이 위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나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으며 그분의
위대한 평화, 권능, 그리고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기도문을 진심으로 따라해 보세요
(요한복음 1:12):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자
하며, 그의 보혈로 수많은 나의 죄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사함받고자 합니다. 나는 죄악의
길로부터 떨어져 당신께서 내 주님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아무 것도 달라진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당신은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사도행전 16:31)! 이제 당신은, 나뭇가지와 같이, 그분과 매 순간 붙어있게 되며 (요한복음 15:1-8) 언젠가 그분께서 당신을 천국에 있는 새 고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찾아오실겁니다 (요한복음 14:1-3).



8 장 제자되는 증거

(1) 다음 구절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8 개역한글)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를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가 그리스도께로 나온 단계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3:8). 우리는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무엇을 하는지는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역사할 때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준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닮은 새사람을 창조한다. 비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거나 듣지 못하지만 그분이 해 놓은 일을 본다.

(2) 어떻게 하면 삶이 바뀌고, 마음이 새로워 질 수 있는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개역한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처럼 만들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나타내 줄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어 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 사이에 있는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품성은 한 가지의 선한 행동이나 한 가지의 나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품성은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에 의해 나타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생각해 주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의 눈에 올바르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악을 피할 수도 있다. 이기적인 사람들도 선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누가 우리의 가장 뜨거운 애정과 최선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가장 절실한 생각은 그분에 대한 것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분의 것이 된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열망한다.

(3)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지게 되는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개역한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면 우리 생애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고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에 싫어하던 것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은 겸손해지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워진다. 술을 많이 마시던 자들은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되고 불순한 자들은 순결해진다. 세상의 허영을 좋아하던 자들은 그것들을 버리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입는 의복으로 관심을 끌고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베드로전서 3:4).

(4)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잘못을 지은 이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8 개역한글)

참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흠친
것을 돌려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된다. 우리의 일은 어렵게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즐거움이 된다.
전에 어두웠던 길이 의의 태양에 의해
밝아진다.

(5)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새롭게 된
마음을 가득 채우고, 변화시키는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전서
3:12 개역한글)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 구주의 생애를 이끄는 지도력이 되었다. 사랑은 그분의 모든 행동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랑은 우리의 죄 된 마음에서 유래될 수 없다. 사랑은 예수님이 살아 계신 마음에서만 발견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한일서 4:19).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은 사랑에 의해 지배된다. 사랑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 준다. 사랑은 증오를 몰아내고 우리를 온순하고 친절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애를 즐겁게 해 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게 해 준다.

(6)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해야 하는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15 개역한글)

(7)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가능해지는 순종이, 그분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1서 2:4 개역한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에 있어서 두 가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점들에 유의해야 한다. 첫 번째 것은 이미 설명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신뢰하는 오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이기심과 죄로 말미암아 망쳐지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오류 역시 꼭 같이 위험하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는다.

(8) 다시 태어나게 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히브리서 10:16 개역한글)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사랑은 바로 율법의 중심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는 그분의 사랑의 율법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애에 실천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히브리서 8:10)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만일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형성하지 않겠는가?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요한일서 5:3, 2:4). 믿음은 우리를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서 면제해 주지 않는다.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는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율법을 준수할 수 있게 해 준다.

(9)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덩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16 개역한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20 개역한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 주는 선물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요한일서 3:5,6). 이것이 진정한 증거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감정과 사상은 그분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된다. 우리의 행위는 그분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바 곧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기를 원하시는 바와 일치하게 된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된다”(요한일서 3:7).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준다.

(10) 우리의 마음을 주께 바친 뒤 우리 인생에 나타나야 할 두가지 성품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17 개역한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에베소서 2:8).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야고보서 2:17).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당신 자신에 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고 말씀하셨다(시편 40:8). 예수님께서서는 이 지상 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5:10). 성경은 말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한일서 2:3,6).

(11) 우리의 믿음과 섬김은, 누구를 본받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21)

(12) 우리가 좇아야 할 성품은 무엇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약속하신것은 무엇인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마태복음 5:6 개역한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동산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일, 곧 완전한 의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그 외의 다른 길로 얻어질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모든 피조물의 행복이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죄가 영원히 계속되고, 고통과 불행이 결코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13)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특권은 무엇인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4 개역한글)

(14)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는 보혈을 통해, 우리가 받게되는 두 가지 선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7 개역한글)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순종할 수 있게 해 줄 우리 자신의 의를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것과 똑같은 시련을 당하셨지만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제안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죄 된 자아를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15)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뒤,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안에서 거하고 성장해야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개역한글)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어야 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때 우리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갈라디아서 2:20).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리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0:20). 그러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의 선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만하거나 자찬할 이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예수님의 의 안에 있다. 우리는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된다.

(16)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과 신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19 개역한글)*

우리는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진실임을 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까지도 그 사실들을 알고 믿는다. 성경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야고보서 2:19)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바를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게 된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믿음이 우리를

순결하게 해 주므로 우리는 그분과
같아진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순종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율법을 즐거워하게 된다. 다윗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고
말했다(시편 119:97).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로마서 8:1)을
때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17)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하시는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6
개역한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자 진정으로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품성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애가 결점으로 가득한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희망 없이 물러서지 말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과오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슬피 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삼킨바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18) 만일 우리가 성품을 다듬는 동안
죄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있는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1서 2:1
개역한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요한복음 16:27)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열망하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 반영된 당신 자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보기를 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굴복시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하실 것이다.
우리는 큰 열망을 안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더욱 완전히 믿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 구주의 능력을 의지하자. 우리
생애의 빛이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자.

(19)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있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이사야
64:6 개역한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더 많은 결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 많은 우리
자신들을 완전하신 구주와 비교할 때
우리는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사단이 우리를 지도하는 힘을 잃을 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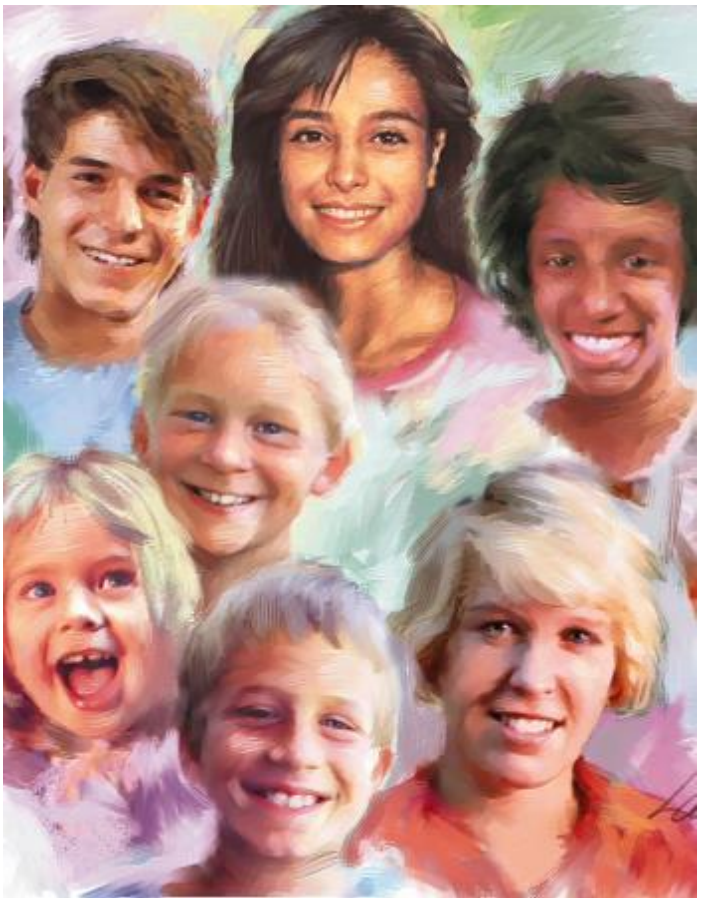
그분의 은총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하나님을 내 구주이자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과실들로 내 모습이 바뀌고, 나를 통해 그분의 의로우심과 성품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illegible]



9 장 영적 성장

(1)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갓난 아이로써,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열망해야 하는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2 개역한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품성이 변화된다. 성경은 이 변화를
새로남이라고 한다. 이것은 또한
농부가 심은 좋은 씨앗의 성장에도
비유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막
배운 사람들은 또한 “갓 난 아이들
같”다고 불리어진다(베드로전서 2:2).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

성인이 될 것이다.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처럼 그들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이사야 61:3).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이해시키고자 천연계의 생명체로부터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람들의 지식을 다 활용할지라도 하나의 생물도 창조할 수 없다. 인간은 가장 작은 식물이나 동물도 창조해 낼 수 없다. 식물과 동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만 산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창조하신다.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요한복음 3:3).

(2) 왜 우리는 스스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는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14 개역한글)

사람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다. 사는 것이 그러한 것처럼 자라나는 것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꽃을 피어나게 하시고 꽃에서 열매가 자라나게 하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열매 안에서 씨가 맺혀지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다(마가복음 4:28).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라고

말했다(호세아 14:5-7). 예수님은 우리에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고 말씀하신다(누가복음 12:27). 식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써만 자란다. 그것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일하지 않는다. 아이는 자신의 힘이나 염려로써 더욱 키가 커지게 할 수 없다. 영적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일함으로 자라날 수 없다.

(3) 다음 구절에서 주님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비유와,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84:11
개역한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호세아 14:5
개역한글)*

식물과 아이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곧 공기, 햇빛, 음식을 받음으로써 자라난다. 이러한 천연계의 선물이 식물과 동물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오신다. 그리스도는 천연계의 많은 축복들로 비유된다. 그분은 “영원한 빛”(이사야 60:19)이시며 “해요 방패”시다(시편 84:11). 그분은 “마른 땅에 비” 같으며(호세아 14:5), “땅을 적시는 소낙비”(시편 72:6) 같으시다. 그분은 생수이며,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시다(요한복음 6:33).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 곧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비할 데 없는 이러한 선물은 은혜의 공기로 이 세상을 둘러쌌다. 이 공기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이다. 만일 우리가 이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을 택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장성한 남녀들이 될 것이다. 꽃은 태양의 밝은 빛을 받기 위해 태양을 향하여 돌아간다. 빛은 꽃에게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준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야 한다. 그러면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이며 우리의 성품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자라날 것이다.

(4)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과실을 맺을 수 있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개역한글)

성장을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의지하는 것처럼 거룩한 생애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해야 한다. 그분을 떠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나거나 죄에서 돌아설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질 것이다.

(5) 우리 믿음의 근원은 누구이시며, 그리스도인이 겪는 경험을 통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2 개역한글)**

많은 사람은 일의 어떤 부분은
스스로의 힘으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능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살고자 애쓴다. 그들은 분명히
실패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은혜 안에서의
우리의 성장과 기쁨과 유용성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애 자체에
달려있다. 우리는 매일, 매시간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써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또한 완전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속적(永續的)이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생애의 시작과 마지막에 함께 계시고 모든
발자취마다 함께 계신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고 말했다(시편 16:8).

**(6) 우리는 어떻게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6-7 개역한글)**

그대가 처음 그분을 받아들인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 안에 거하라.
그대는 완전히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고자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바쳤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죄를 없애거나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왔으므로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그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 주셨다고 믿는다. 그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대는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주고받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모든 것, 곧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정신과 그대의 사업을 그분께 바쳐라. 그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 그분께서 그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라. 그대는 모든 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스도, 복스러운 그분을 소유하여 그대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라. 그분을 그대의 힘과 의와, 그대를 도우시는 분으로 영원히 삼으라. 그분은 그대에게 순종할 힘을 주실 것이다.

(7) 매일을 시작할때, 주님과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17 개역한글)*

아침에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라. 이것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취하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놓습니다. 저를 오늘 당신의 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그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드려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 말씀드려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의 계획들을 실천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라. 이렇게 함으로 그대의 생애를 매일 매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것이다. 그대의 생애는 더욱 더 예수님의 생애처럼 풀리어지게 될 것이다.

(8)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3-4
개역한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18 개역한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식의
생애이다. 거기에는 열광적 기쁨의
느낌이 없을지는 몰라도, 활기차고
평화로운 신뢰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대의 희망은 그대 자신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대의 연약함은 그분의 능력과,
그대의 부족한 이해력은 그분의 지혜와
연합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바라보거나 그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완전한 성품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이 자신을
어느 정도로 낮추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생애 하셨는가 생각해 보라.
그분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라. 그분의 방법을
모방할 때, 그대는 그분처럼 변화를
입게 된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그대는 그분처럼 된다.

(9)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초청은 어떤 내용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개역한글)

예수님께서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안식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말해 준다. 다시 그분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마 11:28). 다윗도 똑같은 사상을 전해 준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시 37:7).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15절에도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을 모든 일을 중지하라는 뜻이 아니다. 안식에 대한 구주의 약속은 일을 하라는 부르심과 병행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마태복음 11:29).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많이 쉬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하게 될 것이다.

(10) 사탄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터 떼어놓고, 그분과의 소통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가지 수단은 무엇인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마가복음 4:19 개역한글)

우리가 자신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돌아서게 된다. 사단은 이것을 알므로 우리의 마음을 구주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애쓴다.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한다. 사단은 세상의 쾌락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자 애쓴다. 사단은 생애의 걱정과 슬픔을 이용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우리의 결점과 약점들을 이용한다. 우리는 사단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진심으로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점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간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분리되고, 사단이 승리를 얻게 된다.

(11)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확답을 얻고 평안을 찾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1서 5:12-13 개역한글)*

우리는 자아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자아에 대하여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갈라디아서 2:20).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안에서 쉬라고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것을 지켜 주실 수 있으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자아와의 싸움에 이기게 될 것이다.

(12) 죄의 길로 되돌아선 이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 (에스겔 18:24 개역한글)*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셨을 때,
그분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의 줄로 당신
자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이 줄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사단은 그리스도와의 이 결속을
깨뜨리는 길을 우리로 택하게 하고자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주인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며 또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 우리의
눈을 언제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 볼 때
안전하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린도후서 3:18).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13 개역한글)*

초기의 제자들이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켰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들은 그분을 찾았고, 발견했고, 좇았다. 그들은 들에서나 집에서나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했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진리의 교훈을 매일 듣는 그분의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의 의무를 알기 위해 그분을 바라보았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야고보서 5:17). 그들은 죄와 더불어 똑같은 싸움을 싸웠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똑같은 은혜가 필요했다.

(14) 유혹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자손에 대해 다음 구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로마서 7:19 개역한글)*

그들은 죄와 더불어 똑같은 싸움을 싸웠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똑같은 은혜가 필요했다. 크게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은 구주를 가장 잘 닮았다. 그러나 요한 역시 본래 그런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뻔뻔스럽고 명예욕이 강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설치고 쉽사리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 거룩하신 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나자 그는 자신의 결점들을 보게 되고, 매우 겸손해졌다.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과 친절을 깨달았다. 그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왕이실지라도 겸손하신 것을 보았다. 요한이 구주를 주목하게 되자 그의 마음은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졌다. 날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감으로 마침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보지 않게 되었다. 요한은 자신의 기질을 예수님의 능력에 굴복시켰고,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그 안에 새로운 품성을 형성시켰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분명히 변화를 입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온 성격은 향상된다. 그분의 성령,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 주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과 하늘을 향하게 해 준다.

(15)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어떤 약속을 남기셨는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20)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심을 느꼈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과 빛을 느꼈다. 구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얘기하시고 기도하셨다. 그분은 희망과 위안의 말씀을 하셨다. 평화의 기별이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동안 그분께서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천사의 무리가 그분을 영접하자, 그분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28:20). 예수님은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승천하셨다. 제자들은 그들의 친구이시며 구주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을 알았다. 그분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

중 한 사람으로 계셨다. 그분은 당신의 상한 발을 하나님께 보이고 계셨다. 그분은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을 위하여 지불한 대가를 당신의 아버지께 상기시키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데려 가실 것을 알았다.

(16)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그분의 제자들의 마음 속에 항상 계실 수 있는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16)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했다. 그들이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약속을 되풀이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생각을 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 23,24).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뻗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기 때문이었다(로마서 8:34). 오순절 날에 보혜사가 그들에게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7).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 계실 것이었다. 사실상 그분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셨을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빛과 사랑과 능력이 되어 그들에게서 비쳐 나올 것이었다. 제자들을 본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사도행전 4:13).

(17)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 이외에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요한복음 17:20 개역한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하신 모든 것들을 오늘날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하시고자 하신다. 그분의 제자들이 주위에 모였을 때 드리신 마지막 기도에서, 그분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7:20). 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당신이 하나님과 연합한 것처럼 우리도 당신과 연합할 수 있도록 간구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구주께서는 당신 자신에 관하여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요한복음 5:19),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4:10).

(18) 만약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진실을 전파한느 것으로 그분을 위해 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15 개역한글)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면, 그분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빌립보서 2:13)고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일하신대로
일하며 그분의 정신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범사에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다(에베소서 4:15 참조).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내
인생에서 일하셔서 나를 성장시키시게
됨을 알게 되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 노력이나
걱정으로 나의 영적 성장은 일어날 수
없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그분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내 삶을
그분에게 바쳐 그분이 나를 상장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10 장 사업과 생애

(1)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지시하신 하늘의 율법은 무엇인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개역한글)*

우주의 모든 빛과 생명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분의 축복은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과 같다. 그
축복들은 샘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과
같이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 나간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그것이 사랑과 축복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 갈 것이다.

우리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자들을
향상시키고 구원하는데 있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자 애쓰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치욕과
죽음을 당하셨다. 천사들 역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활동한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많은 자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낮추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그 일은 죄 없는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이타적 사랑은 하늘에 충만해 있고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사업에 있어서 그들을 지도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드러운 감화력은 숨겨질 수 없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거룩한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막에 있는 샘물과 같다. 그것은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자 흐른다.

(2)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28 개역한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모든 인류를 축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일하도록 이끌 것이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친절하고 상냥스럽게 해 줄 것이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지상에서의 구주의 생활은 안이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분은 잃은 자들을 구하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기심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어려운 일과 피곤한 여행에서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20:28). 이것이 그분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큰

목적이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마치 음식과 같았다. 그분의 사업에는 자아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3) 우리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간증으로 이끄시는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29 개역한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이 이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생애로써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욕망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오자마자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갈망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를 발견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한다. 우리를 구원하고 정결케 하는 진리는 우리 마음속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놀라운 애깃거리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당신의 제자 중 하나가 되도록 부르셨을 때 빌립은 달려가서 한 친구를 불러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했다. 우리도 구주를 발견하면 빌립처럼

될 것이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만나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초청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기쁨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한복음 1:29)을 보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4) 다른 이들에게 이타적인 사업을 베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25 개역한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자 할 때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로 당신의 구속의 경륜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과 같이 될 권리를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조력자가 되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줄 수 있게 된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최대의 기쁨이다. 이러한 사랑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창조주께로 가장 가까이 이끌려 가게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늘 천사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희망의 기별을 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셨다. 그분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조력자가 되도록 택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축복과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이타적 사업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다.

(5) 그리스도가 보이신 자기 희생의
예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9 개역한글)*

우리가 그분과 고난을 같이 받을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상통하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 줄 때마다 우리는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일을 하게 되고 우리의
구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된다.
“부요하신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린도후서
8:9). 오직 우리가 창조 받은 목적대로
일을 할 때만 우리의 생애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잘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되어 하나님께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될 때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과 염려들은
우리로 더욱 성경을 연구하고 열렬히
기도하게 해 줄 것이다. 우리는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다른 이들에게 다다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빌립보서 2:13 개역한글)*

(7)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내려지는가?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피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10-11 개역한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 사업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우리에게 준다. 그것은 또한 더욱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 생애에는 게으름과 이기심을 위한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은혜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강하게 된다.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식별하게 된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고, 우리는 더욱 큰 힘으로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감동에 반응하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는 봉사에 우리 자신을 바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8) 성령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일어나게 하는 두 가지 행동은 무엇인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25 개역한글)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유일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도록 요구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영적 훈련이기 때문이다. 운동을 함으로써 몸이 튼튼해진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를 튼튼하게 유지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건전하거나 강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것은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살고자 하는 것과 같다.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미구에 그 팔다리를 움직일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9)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28:19-20 개역한글)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교회를 이용하신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모든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껏 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할 빛을 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명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오늘날 타국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곳에 사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자금을 보내 줌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나라들 안에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들이 훨씬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10) 그리스도인들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디에서 일해야 하는가?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24 개역한글)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일할 수 있다.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다.

우리 구주께서는 지상 생애의 대부분을 나사렛의 목공소에서 일하며 보내셨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걸어 다니실 때 천사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목공소에서 일하시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셨다. 목수로서 일하는 것은 갈릴리의 격렬한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의무였다. 우리 역시

우리의 비천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동안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기록했다(고린도전서 7:24).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매일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신앙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 줄 것이다. 상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도 갈릴리의 언덕들 사이를 걸어 다니신 그분의 발자취를 날마다 따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창조주시며 구주이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끔 일해야 한다.

(11)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2 개역한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보다 일할 준비를 더 잘 갖추었다는 이유를 들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회피하고자 해 왔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일을 하도록 수련을 쌓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요구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사업과 보상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속에 나타난 방법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주인이 종들을 불러 각각 일들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비천한 의무들을 어떻게 대하게 되는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6-7 개역한글)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매일의 비천한 의무들을 마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골로새서 3:23) 앎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의 생활에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드러운 감화력은 우리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고상하게 해 주고 축복해 줄 것이다.

(13)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서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게 되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23 개역한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어떤 중요한 시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보다 큰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염려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사업은 잃어버린바 되지 않을 것이다.

(14) 신앙과 나눔의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고린도후서 9:6 개역한글)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비천하고
가련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애는 흘러나와 계속 불어나는
축복의 물결이 될 수 있다. 그들은 하늘에
이르기 전에는 그들이 어느 정도의 선을
이루었는지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공에 관하여 염려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그들이 어떤 큰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나 깨달을 필요가
없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 주신 일을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할 것 같으면 그들의 생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더욱
고상한 사업과 내세의 생애의 기쁨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께서서 인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떠나 주심에 감사드린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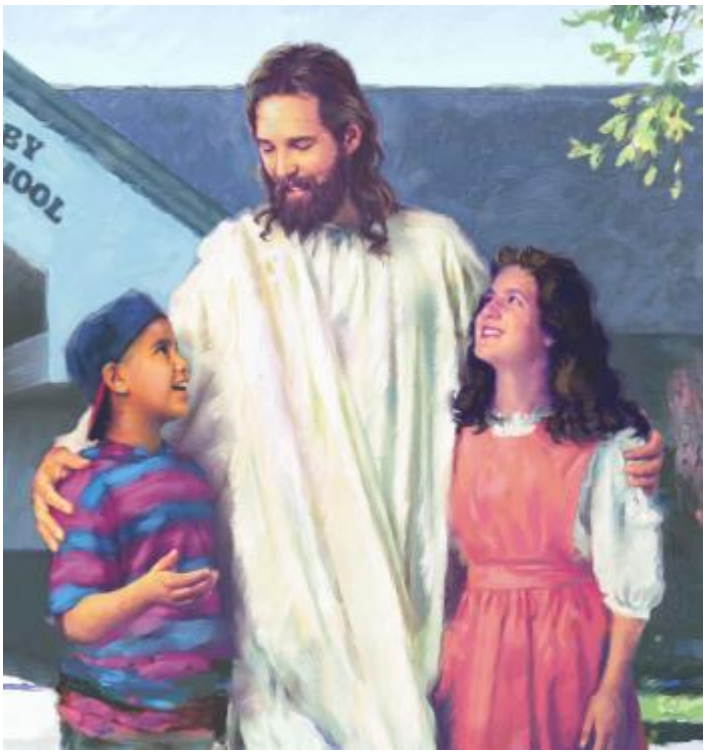
나는 그리스도가 보이신 전도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인도의 기도를 올린다.
첫째, 사람들과 어울려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둘째, 다른 이들의 필요에 대해
동정을 보일 수 있고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영적 축복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다른 이들을 사역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바치며, 다른 이들을 사역하는 동안 그분께서 인도해주시길 기도드린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blank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or drawing.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present.



11 장 하나님을 알게 됨

(1)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1 개역한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고 당신의 사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 천연계는 언제나 우리의 감각에 말해 주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창조하신 사물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된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천연계의 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교훈들을 듣고 이해하게 된다.

푸른 초원, 큰 나무들, 그리고 꽃이 피는 식물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부른다. 구름과 하늘의 영광은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떨어지는 빗방울과

흐르는 시냇물들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천연계의 사물들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들을 가르치신다. 나무와 새와 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언덕과 호수와 하늘은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기억나게 해 준다. 우리는 일을 할 때에도 그분의 교훈을 생각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즐기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정의 단순하고 조용한 비를 즐기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성품을 가장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마치 꽃이 자라는 것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게 자라기를 원하신다.

(2)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시편 4:4
개역한글)*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신뢰와 순종의 귀중한 교훈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별들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므로 해마다 하늘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궤도를 따르고 있다. 피조물 중 가장 작은 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

(3)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계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29,
30 개역한글)**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각각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 비록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우주에 있는 세계들을 붙들고 계신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두려움을 잊고
변변찮은 노래를 부르는 가장 작은 새도
돌봐 주신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일하러 갈 때 보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분은
부자가 그의 저택에서 언제 연회를
베푸는지 아신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이
자식들을 식탁 주위에 모을 때 그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주시하시고 모든 미소를 보신다.

**(4)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어떤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개역한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애는
지금처럼 슬픔으로 꽉 차 있지 않을 것이다.
크건 작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놓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걱정들
때문에 결코 압도당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감당하리 만큼
충분히 강하시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5)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21:5 개역한글)

우리의 감각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슬픔을 결코 알지 못할 미래의 세상을 생각해 보라. 아무 것도 늙거나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구원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본향을 생각해 보라. 천연계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작은 부분만을 본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말한다(고린도전서 2:9).

많은 시들이 천연계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쓰여졌다. 그러나 천연계를 가장 즐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모든 꽃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사랑을 본다. 그는 언덕과 강과 바다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수단으로 보게 된다.

(6) 우리가 성령님과 같은 길을 거를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33:5 개역한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생애를 지도하시는 길과,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놓고 이해하려고 하기만 하면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 귀중한 교훈을 발견하게 된다.

(7) 위대한 이들의 경험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4 개역한글)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서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취급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 성경은 오래 전에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다(야고보서 5:17). 우리는 그들이 겪은 어려움을 안다. 그들도 우리처럼 실망하고,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우리 구주처럼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놀라운 길과, 그들이 누린 빛과 사랑과 축복을 읽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큰일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한다.

(8) 성경을 읽음으로써 알 수 있는 두 가지 특별한 축복은 무엇인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39 개역한글)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성경에 대하여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5:39). 그분의 말씀은 신약에 더욱 적절히 해당된다. 성경은 우리 모두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구속자에 대하여 말해 준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 준다. 성경의 첫 책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 준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3). 그 마지막 책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요한계시록 22:20)고 약속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 우리가 구주를 알고자 하면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9) 성경 공부와 묵상으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63 개역한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다. 그 말씀은 목마른 자에게 샘물과 같다. 그것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과 같다. 예수님께서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애에도 마찬가지이다. 선한 생각이 우리에게 영적 힘을 준다.

(10) 바울과 같이, 우리가 행하고 나눠야 할 성경의 위대한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2 개역한글)

하늘의 천사들은 왜 예수님께서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셨는지 더욱 많이 알고 싶어 한다. 구속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부를 노래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분의 아들에 대한 노래가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노래를 영원토록 부르게 된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주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희생은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들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구주의 품성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하늘의 사물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사랑으로 점점 더 혼합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우리는 더욱 큰 이해력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욱 크게 신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일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11) 우리의 성품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성경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지시하는 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8 개역한글)

(12)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스러움에 대해 묵상하는 것을 통해, 우리와 우리를 지켜보는 다른 이들에게 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18 개역한글)*

우리의 완전하신 구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변화되고자 소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처럼 순결해지고자 매우 갈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보여 주기를 원할 것이다.

(13)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고, 지혜를 얻게 되는 이는 누구인가?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7 개역한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록되었지 홀륭하게 교육받은 사람들만을 위하여 기록되지 않았다.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위대한 진리는 대낮처럼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보여 주신 길 대신에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14)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15 개역한글)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관해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해 주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약해지게 한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사물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해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이해력은 증진된다.

성경 공부보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사상을 고상하게 해 주는 책은 없다. 사람들이 성경을 마땅히 연구해야 할 만큼 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더욱 더 넓은 마음과 고상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성경연구는 인생에 있어서 목적을 갖게 해 준다.

(15) 어떤 종류의 공부가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11 개역한글)

성경을 부주의하게 읽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을지라도 성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성경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되 하나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구속의 경륜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달을 때까지 연구하는 것이 더욱 좋다. 이와 같은 연구는 진정한 목적 없이 많은 페이지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읽고 그 말씀들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을 읽고 걸어가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다.

(16) 성경의 가장 깊은 진실을 바르게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 공부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사야 28:10 개역한글)

주의 깊이 연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참으로 알기 쉽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한 구절을 다른 구절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성경을 공부할 때 기도하면 우리는 풍성한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광부는 금을 발견하기 위하여 땅을 깊이 판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감춰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찾아야 한다. 그는 또한 부주의하게 읽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가장 귀중한 보화를 발견할 것이다.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게 흐르는 시냇물과 같아질 것이다.

(17)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 성령님께 우리를 지도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개역한글)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기도해야 한다. 성경을 펴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해 주시도록 구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나dana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구주께서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고 말씀하셨다. 나dana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대답하셨다(요한복음 1: 47,48). 예수님께서서는 도한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를 보신다.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 그분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해 주고, 우리의 사상을 지도해 줄 것이다.

(18) 누가 성스러운 진리를 알리는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13 개역한글)

성령께서는 구주를 높이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의의 순결과,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보여 주는 일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6:14). 성령은 유일하고 참된 거룩한 진리의 교사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돌아가시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의 교사와 인도자가 되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울 점과,
인내, 안식, 그리고 희망을 찾겠다. 나는
그분의 진실을 내 마음에 담고 그분에게
반하는 죄와 멀어지기 위해, 하나님께
성경 공부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달라고
기도드리겠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성령님께서 내 교사가 되어 주시고,
나에게 겸허한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절 마다, 계율 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진리를 알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내 목표는 내 온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혼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망이며, 이를 통해 성경이 비추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12 장 기도의 특권

(1) 기도를 위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12 개역한글)*

하나님은 천연계와 성경,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그분을 배운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과 힘을 주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소원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향하여 끌려갈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자비, 그분의 축복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사상을 그분과 나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 슬픔, 일상생활에 대하여 그분께 말씀드릴 무엇인가를 가져야 한다.

기도는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 놓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알려 주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받아들이길 수 있게 되고자 기도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분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2)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께 나아갈 때, 무엇을 해준다고 하셨는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7 개역한글)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모든 염려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의 약속이 된다.

(3) 그리스도께서 이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소통하는 일의 예시는 언제 보이셨는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35 개역한글)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다. 우리 구주는 지상에 계실 때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셨다. 그분의 필요는 우리들의 필요와 똑같았으므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매일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힘을 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함께 나누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분이시기 때문이다(히브리서 4:15).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악에서 떠나셨다. 그분은 죄악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견디셨다. 그분도 인간이셨으므로 우리와 똑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다. 그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셨다. 당신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그분에겐 위로와 즐거움이 되었다.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다. 그렇다면 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를 얼마나 더 많이 느껴야 할 것인가.

(4)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올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6 개역한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축복과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이처럼 적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어린아이의 진실한 기도까지도 즐겨 들으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더디다.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도움을 구하지 않는 가련하고 속절없는 사람들을 하늘의 천사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적게 기도하고 너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기를 좋아하고, 그분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의 사상을 그분과 나누는 것이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 없이,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빛 없이 걸어가기를 원한다.

(5) 유혹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6:41 개역한글)*

악한 자인 사단의 흑암이 기도를 게을리 하는 자들을 두르고 있다. 그들이 기도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그들로 죄를 짓도록 이끈다.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기도하기를 지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축복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며, 기도는 그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손 안에 쥐어진 열쇠이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주의하게 될 위험에 처한다. 우리는 옳은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악을 저항할 은혜와 힘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6)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1
개역한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도록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분명한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 중 첫째는 그분께로부터 도움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분은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이사야 44:3).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충족될 것이다. 마음이 성령의 감화를 받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7)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선 어떤 세 단계를 행해야 하는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9 개역한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보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그분께 그것을 구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신다.(마태복음 7:7).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라고 기록했다(로마서 8:32).

(8) 범죄는 우리의 기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9 개역한글)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범죄를 지속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슬퍼하는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들으신다.

모든 고의적인 잘못이 교정(矯正)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끔 해 줄 수는 결코 없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자비이다. 우리를 깨끗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피 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납하심을 받으려면 그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9)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24 개역한글)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이 또한 필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브리서 11:6).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많은 약속들을 지키는데 성실하시다.

우리는 때때로 간구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것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으므로,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을 구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심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때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무도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금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가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어라.

(10) 만약 우리가 겸손하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1서 5:14-15 개역한글)*

만일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 대하여 생각하면, 그것들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날 것이다. 우리는 속절없음을 느끼면서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있다. 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실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께 아뢰야 한다. 그분께서는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것들이 올바르게 유지되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들어주실 것이며,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게 해 주신다.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진다. 우리는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사랑과 동정의 마음으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의 손길은 사랑과 따뜻한 동정심으로 우리 위에 얹혀 있다.

(11)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14-15 개역한글)

우리가 자비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한다(마태복음 6:12).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용서해 줄 때 용서받게 될 것이다.

(12)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로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시켜야 하는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2 개역한글)

기도에 있어서의 성실성이 응답의 조건이 되어 왔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자 하면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로마서 12:12). 바울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기록했다(골로새서 4:2).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했다(베드로전서 4:7).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다(빌립보서 4:6).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유다서 20,21절에서 말했다. 규칙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케 해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해 준다. 그리하여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통로를 언제나 열어 놓아야 한다. 할 수 있는 대로 언제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에 우리도 있도록 하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상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회에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우리 자신들을 두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로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린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것이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생명줄과 같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나는 기도라는 선물을 통해 그분과 항상 소통하고 그분이 계심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며, 그분의 완벽한 계획과 그분의

완벽한 의지에 맞추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는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기도로 “담대히 그분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수락해 내가
매일 그분과 동행하며 필요한 도움과 은혜,
그리고 자비를 구하고자 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blank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or drawing.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present.



13 장 기도의 힘

(1)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결과는 무엇인가?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6 개역한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 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 있게 될 것이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 생애가 강건해 지기는 불가능하다. 가족기도와 공중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러한 은밀한 소원들을 들을 수 있는 다른 귀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을 때 다른 영향들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조용히 그분께로 접근해 갈 수 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으로부터 신선한 감화력이 흘러나올
것이다. 조용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사상을 나눌 때 그분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열린다.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 줄 거룩한
빛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성채(城砦)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매일의 업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한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다. 말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꽃의 향기와 같다.
사단은 기도로써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정복할 수 없다.

(2) 다음 구절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7 개역한글)*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드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기도로써 우리의 마음을 향상시키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변화한 거리를 걸어갈 때, 그리고 업무를
이행하고 있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선지자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께
그를 인도해 달라고 구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예수님을 하늘의 손님으로 초청할 수
있다.

우리 주위에 사악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깨끗한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 수 있다.
기도로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상달시킴으로써 우리는 불순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아 버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깨끗한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걸어가게 된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상을 나누게 된다.

3)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소통할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3 개역한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나은 견해를 가지며, 영생의 가치에 대하여 더욱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결의 미(美)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한다. 우리는 그 미(美)를 더욱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질 수 있도록 그분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 그리하면 우리의 생각은 꽃이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쉽게 돌아갈 것이다.

(4)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에게 어떤 공휼을 약속하시는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3 개역한글)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그분과 나눌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을 피곤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릴 수 있으시므로 당신의 자녀들의

소원을 외면하고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야고보서 5:1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같이 느끼고 우리로 그 슬픔을 당신께 아뢰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 가져 갈 수 있다. 그분께서 감당할 수 없으리 만큼 벅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붙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분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생애에서 그분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둡거나 슬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해결할 수 없으리 만큼 큰 문제는 없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과 염려에 동참하시고, 모든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분의 완전하신 보살핌을 받고 있다. 그분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한 다른 어떤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각 사람을 대우하신다.

(5)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16 개역한글)*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6:26,27).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15:16).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업을 해야 한다.

(6) 기도와 경배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27 개역한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16 개역한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일을 제쳐 놓고 모든 시간을 기도에 쓰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생애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는, 기도는 물론이요 일도 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미구에 기도하는 일을 그치게 되든지, 그의 기도가 한갓 습관에 불과해 질 것이다. 남을 돕지 않고 그리스도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것이 별로 없다. 그들을 위하여 일하신 주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기도할 것이 전혀 없게 된다. 그들의 기도는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얻고자 기도하지 않는다.

(7) 그리스도인의 친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5 개역한글)

우리가 서로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함께 모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빛과 정신을 잃게 되고, 우리의 영적 생활은 건전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될 때 우리는 피차간의 동정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땅히 하도록 계획하신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우호적으로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강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활기를 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일 우리 하늘 아버지에 관하여 더욱 많이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온화해지고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한편 우리 자신에

대하여 더욱 적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8) 평강에 머무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3-4
개역한글)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2 개역한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을 즐겨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축복받는 그만큼 그분을 자주
생각하게 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우리는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들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큰 이유를 가지고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그분을
첫째로 모시게 되면 그분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
말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선물도 그분께 드릴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선 안
된다. 그것들은 우리로 언제나 그분을
기억나게 해 주고, 이런 축복들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라. 그분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히브리서 7:25).

(9)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들어가야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2 개역한글)*

우리는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시편 107:8)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기도는
구하는 것만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만 언제나 생각하고
우리의 축복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충분하게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나 받지만
얼마나 적게 감사하는가!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들에 대하여 그분을
얼마나 적게 찬송하는가!

(10) 그리스도에게 기꺼히 삶과 목적을
바치는 이들의 마음에선 무엇이
흘러나오게 되는가?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2:7 개역한글)*

옛날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정한 시간에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신명기 12:7).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슬픔 대신에 찬송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해야 한다.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행복한 경험이어야 한다.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까다로운 주인으로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다. 우리가 그분께 예배드릴 때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가 위안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섬길 때 어려움보다 더욱 큰 즐거움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예배드릴 때 그분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즐거운 생각에 잠기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매일의 일에 기쁨을 주고,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준다.

(11) 우리의 생각, 대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칭송하면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23)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어야 한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즐겨 맡겨야 한다.

(12)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있어야
하는가?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시편 107:21-22 개역한글)*

찬양은 마음을 하늘로 더욱
가까워지게 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노래와 음악으로 경배를
받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예배하게
된다. 그분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다(시편 50:23).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의 창조주 앞에 나가자.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로 그분께
경배하자(이사야 51:3).

*나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속적으로
그분과 소통하기 위한 개인적인, 그리고
공개적인 기도의 필요를 깨달았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기도를 드릴때 하나님의 자비와 내
인생에 선한 일을 주심에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을 넣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기도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와 내 인생과 내가 기도하는 이들의
인생에 그분의 권능을 가져올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어 감사하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14 장 의심을 극복하는 길

(1) 그분의 신성함에 의문을 가졌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38-39
개역한글)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의심한다. 그들은 성경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읽는다. 다만 짧은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지내온 사람들에게 가끔 그런 일이 있다. 사단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믿는 믿음을 흔들려 버리고자 시도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다. “내가 어떻게 바른 길을 알 수 있을까? 만일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떻게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언제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우리는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그분께서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건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사실임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할 가능성이 없도록 하지는 않으신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로 판명된 것 위에 세워질 것이 아니고, 건전한 이성(理性)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의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어질 수가 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다.

(2) 인간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와 그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8-9 개역한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사업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가장 훌륭한 정신을 가진

사람도 그와 같은 거룩한 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분은 언제나 신비에 속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욥기 11:33).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고 기록했다(로마서 11:33). 비록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을지라도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이다(시편 97:2).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어 당신의 위대한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께서 가지신 길대로 우리를 인도하게끔 해 준 그 자비와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 중 우리가 알아서 유익할 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의 손길을 의지하여 남은 길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해야 한다.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 줄 것이다.

(3)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후서 3:16-17 개역한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결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며, 어떻게 죽은 상태에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심오한 주제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천연계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신비들이 있다. 가장 현명한 사람도 가장 작은 형태의 생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어느 곳이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이(驚異)들이 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한다고 해서 놀라야만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너무 약하고 좁기 때문에 더욱 높은 그런 생각에까지 미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분의 모든 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사도 베드로는 바울이 기록한 것에 관하여 말했다. 그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고 말했다(베드로후서 3:16).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어려운 부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처럼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 바로 성경의 위대함과 오묘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해 줄 것이다.

(4) 세상의 지식을 통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14 개역한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필요와 소원들을 채워 주는 진리를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 이 진리는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해 준다. 그러나 가장 비천하고 가장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들도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하게 열거된 진리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주제들을 또한 가르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들을 받아들인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는 하나님의 계획, 곧 구속의 계획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 취해야 할 단계들을 모두 알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쉽게 이해되는 이와 같은 진리들 배후에는 우리가 더 한층 연구할 필요가 있는 신비들이 있다. 우리는 대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탐구해야 한다. 우리가 성실하게 진리를 탐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런 진리들을 보여 주신 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을 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없다. 우리의 연약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히브리서 3:12 개역한글)*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돌아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뜻이 반드시 명확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위험이 된다. 사도는 위의 구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한다. 성경의 가르침을 면밀히 연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성경에서 말한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고린도전서 2:10) 탐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사단은 우리의 정신력을 성경 연구에서 분리시키고자 노력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한 바를 설명할 수 있게 될 때 자고해 진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나게 되면 언짢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은 초라하게 느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실 준비가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해력으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그리하여 그들이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없게 될 때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나왔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많은 사상들이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 사상들 중 어떤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전혀 다르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비난할 수는 없다. 성경을 이와 같이 그릇되게 사용하므로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6) 우리는 왜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가?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명기 29:29)*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탐구할 진리가 없어질 것이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성장도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처음이요 최고의 분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욱 위대하신 분이 되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다(골로새서 2:3).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은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배우고자 탐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분께서 얼마나 현명하시고 강하신지 끊임없이 배우게 될 것이다.

(7) 하늘의 진리를 반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12 개역한글)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의 진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펼쳐 놓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오는 빛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10,11).

(8)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맡기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13 개역한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분별력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성경 공부는 다른 어떤 공부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능력을 강하게 해 주고 우리의 정신을 높여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을 하나의 신으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성인 인간의 마음처럼 약해질 수 있다. 우리는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어린 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즐겨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경의 단순한 진리에 대하여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진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능력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초월한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펴야 한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성은 그 자체의 능력보다 더욱 위대한 능력을 봐야 한다. 마음과 정신은 스스로 위대한 영원자존자(永遠自存者)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9) 지혜의 원천은 누구이신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 개역한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이해하고자 탐구하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알기 쉽게 해 주실 것이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의 뜻을 변경시킬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의심으로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되면 성경공부가 불신으로 이끌려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사단이 사상을 지도하게 된다. 사단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껏 어느 정도로 연구했던 간에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실수를 범하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오류만을 찾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분명히 알지 못하므로 그들은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많은 이유를

발견한다. 의심은 단순하고 알기 쉬운 진리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10) 우리가 계속 죄를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 59:2 개역한글)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불신의 진정한 원인은 죄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가 자만하고 죄를 좋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환영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문을 품을 준비를 갖추게 된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한 진정한 욕망과 진리에 즐겨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11)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17 개역한글)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고 흠을 찾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분명히 밝혀진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의문과 의심을 품고 있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은 물론이요 가장 고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인 생애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8)고 그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신다(요한복음 16:24).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 약속들은 결코 실패된 것이 없으며, 실패될 수도 없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 우리의 의심과 흑암은 그분의 임재의 빛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12)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13 개역한글)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한다(골로새서 1:13).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요한복음 3:33).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도움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얻었다. 내 마음의 굶주림은 채워졌다. 성경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준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고 그대는 묻는가? 왜냐하면 그분은 나에게 거룩하신 구주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왜 성경을 믿는가?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성경이 진리이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거짓되고 어리석은 사상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의 영적 여정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17-18 개역한글)

베드로는 그의 형제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한다(베드로후서 3:180).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날 때,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더욱 분명한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새로운 빛과 미를 보게 될 것이다. 빛과 진리는 각 시대를 통하여 교회에 주어져 왔으며, 그것들은 세상 끝날 까지 주어질 것이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잠 4:18).

(14) 다음 구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यो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12
개역한글)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면에서
자라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힘과 연합되고 그분과 접촉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분명해 질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계획과 실패만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위하여 완전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세상 마지막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내 신앙과 그분께서 예비하신
표적들을 통해 그분을 믿기로 결정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떤 인간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심이 된다.
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것은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또한 그분의 위대하심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분께서 성경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해 내 마음에 심겨진 모든 의심과 유혹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나에게 보여주시는 빛을 따라 걷겠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illegible]



15 장 주님 안에서 기뻐함!

(1) 그리스도인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하심, 자비, 그리고 사랑을
누구에게 보여야 하는가?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이사야 12:4-5 개역한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보여
주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부드러운 사랑을 알지
모하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한복음 17:18,23).

(2)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드리고 그분을 따를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다해야 하는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떡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3:2-3 개역한글)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세상으로 보내어진 편지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편지로서 가족들에게 보내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사는 마을과 거리로 우리를 보내신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고자 열망하신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 속에서 그들에게 말해 주는 음성을 듣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하나님의 업적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타낸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을 보도록 인도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게 될 것이다.

(3)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자,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람들로써 우리는 어떤 두가지 성품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6 개역한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가는 길을 비쳐 주는 빛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들에게 비쳐오는 빛을 세상에 비쳐 주어야 한다. 그들의 생활과 품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들이 그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섬길 수 있는지를 보여 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 줄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불평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준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해 지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말해 주고 있다.

(4)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면 불신과 실의, 사탄의 가르침을 받아 드림을 방지할 수 있는 규율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편 125:1 개역한글)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심과 불행으로 이끌어 갈 때 기뻐한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겨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을 보기를 좋아한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가 되도록 지도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갖게하기를 좋아한다. 원수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단은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사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준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대신에 이와 같이 잘못된 사상들에 관하여 생각하게 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사단은 그리스도인 생애가 어둡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것이 어렵고 불쾌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해 줄 수도 있다. 그리하여 그는 악한 자의 거짓말에 찬동하게 된다.

(5) 인생길을 걸어가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9-10)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실수에 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삶은 장미로 가득찬 정원을 걷는 것과 같다. 삶에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가시들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꽃의 아름다움에 주목할 수도 있다. 가시들은 다만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 뿐이다. 만일 우리가 가시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유쾌하지 못한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나간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후회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우리는 곧 압도당하여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둠만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차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생애의 밝은 면들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졌던 귀중한 시간들을 가져 본 적은 없는가?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즐거웠던 많은 시간들을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길옆에서 자라는 향기로운 꽃들과 같지 않는가? 우리는 그 아름다움과 향기로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지 않는가?

(6) 합당하지 못한 죄인이 구원의 진리를 어렵듯이 이해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무엇이로 간증하게 되는가?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사야 12:4 개역한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밝은 면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자주 볼 수 있게끔 그것들을 함께 모으자.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셨다. 그분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사단의 능력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악과

싸워 이기셨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 주기 위하여 하늘 문을 여셨다. 사람들이 어떻게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고 있는지 연구해 보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가 우리 구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그분의 의를 옷 입을 수 있는지 마음속에 그려보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보좌까지 끌어올림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를 원하신다.

(7)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의심을 뛰어 넘는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32 개역한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 만일 자식들이 어머니에 대하여 언제나 거스려 말한다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만일 그들이 어머니가 그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자녀들에게 안락을 주는 것이 어머니의 전 생애의 노력이 되어 왔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되면 어머니의 마음은 상심될 것이다. 만일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아닐지라도 그들의

행동으로 그분의 사랑을 등지고 돌아서는가. 그들은 말한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할지 몰라도 나는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8) 영적인 문제에 관해 깊은 생각에 빠지거나, 이를 다른 이와 나누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14:7 개역한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로마서 14:13 개역한글)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8:9 개역한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8:12 개역한글)

이런 생각들은 해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의심의 말 하나하나가 사단을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들의 의심은 강화되고 천사들은 돌아선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회의적인 말을 한 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사단을 향하여 문을 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의심과 의문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미심쩍은 태도로 말하는 것은 해롭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서 열매를 맺게 될 씨를 뿌리게 된다. 우리의 말의 감화력을

중단시키기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의심이 생길 때와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 거기서 돌아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믿었던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잊어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영적 힘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는가!

(9) 어떤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날 수 있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23 개역한글)

천사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말들이 아버지 앞에 서 계신 분에 대한 것이 되게 하자. 우리가 친구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될 것이다.

(10) 의심과 낙심에 관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있는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14 개역한글)

모든 사람은 시련과 슬픔과 유혹들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로써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우리는 의심의 말을 결코 한 마디도 하지 않도록 습관화할 수도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밝게 해 주기 위하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희망과

거룩한 기쁨에 대한 말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해 줄 것이다.

용감한 사람들 중에도 자아와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거의 기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서 비치게 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로마서 14:7).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혹은 우리가 사람들로 희망을 잃고 그리스도와 진리에서 돌아서게 할 수도 있다.

(11) 누구의 거취를 통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찰 수 있는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6:8 개역한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11 개역한글)*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품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그분께서 다정다감하고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분이 냉랭하고, 사귀기 어렵고, 기쁨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의 생애를 어둡게 만든다.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은 흘리셨을망정 결코 미소는 짓지 않으셨다고 흔히 말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진실로 슬픔의 사람이셨다. 그분은 슬픔이 무엇인지 아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인간의 모든 슬픔을 향하여 여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생애는 고통과 염려로 그늘져 있었지만 그분의 영은 결코 상하지 않았다. 그분의 얼굴은 평화와 행복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기쁨이 그분의 마음에서 흘러나갔다. 그분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안식과 평화,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다니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었지만 불행하지는 않으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과 같아야 한다.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해야 할 위대한 사업이 있음을 안다. 그들은 어리석고 거칠고 야비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조잡한 농담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믿음이 강처럼 흘러가는 평화를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분의 평화는 기쁨의 빛을 비추게 해 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미소를 가져다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심으로 우리가 가진 의심이란 그림자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충만함을 경험해보고자 결심했습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영광스럽게 여기며 다른 이들에게 그분과 동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 평화, 그리고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사탄의 거짓말과 불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믿는
것임을 알기에, 나는 그분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띄워주고 격려해,
그들이 낙심과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16 장

현재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기쁨

(1)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모욕을 줄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32 개역한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11)*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불친절한 행동에
대하여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공훈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서 흘러
나가게 된다. 우리가 비록 곁함밖에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피차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대하여 잘 참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친절할 마음을 갖게 되고 관대해질 것이다.

(2) 낙심이 역병과 같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5 개역한글)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고 기록했다(시편 37:3). 매일 그 날에 해당되는 걱정과 근심이 있다.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여려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걱정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동정과 사랑이 많으신 구주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그분께서 도움이 되시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3)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에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5 개역한글)

어떤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함으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주위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은 닥쳐올지도 모르 어떤 불쾌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꽁 차 있다. 그들은 사소한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염려한다. 걱정 때문에 그들은 감사히 여길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 어려운 시기가 되면 그들은 그들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들은 이런 불행한 시기가 그들을 그분과 분리시키도록 허용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신뢰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온 하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매일의 걱정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어떤 것을 항상 갖게 될 것이다. 걱정이 우리로 시련을 견디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4)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6 개역한글)**

우리는 우리의 사업에 대하여 거정할 수도 있다.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꺼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업을 돌보는 길을 알려달라고 간구하고, 우리가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 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5)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격려해 주시는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33 개역한글)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염려로 눌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앞길에는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위험과 어려운 시기가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악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과 분리시키고자 계획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결코 실족함이 없는 피난처를 그들에게 가리켜 주신다.

(6) 우리가 매일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개역한글)

산상설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 주셨다. 이 교훈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 교훈들이 우리 시대까지 전해져서 우리에게 도움과 위안을 준다. 구주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새들이 아무 염려 없이 찬송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셨다. 그것들은 “심지도 앓고 거두지도 앓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기르”신다.

구주께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물으신다(마태복음 6:26).

위대하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손을 펴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 공중의 새들은 항상 그분의 생각 안에 있다. 그분께서 음식을 새들의 입 속에 떨어뜨려 주진 않지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새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흠어 놓으신 곡식들을 모아야 한다. 그것들은 그들의 등지를 짓고 새끼들을 먹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새들은 노래한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더욱 가치가 있지 않는가? 언제나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돌봐 주지 않으시겠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7) 그리스도는 사랑이 담긴 돌봄을 주시는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6:28-30 개역한글)

그리스도께서는 들판의 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들의 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꽃들의 단순한 아름다움은 솔로몬
왕의 화려한 옷보다 더욱 매력적이었다.
예술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만든 아름다운
옷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들의
우아함과 빛나는 아름다움에는 비교될 수
없다. 신령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꽃들도 여러 가지 색깔들로
입히신다. 어떤 꽃들은 단 하루만 살지만
그것들을 아름답고 와전하게 만드신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큰 관심을 가지시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자 이 교훈을 주셨다. 우리는
의심을 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딸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가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다(요한복음 14:
27, 15:11).

(8) 사랑으로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돕고, 그 보답으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6가지 행위는 무엇인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6-7 개역한글)

이기적인 행복은 쉽게 사라져 버린다. 이기적인 사람은 고독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진정하고 영속적인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인도자가 없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행한 나쁜 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떤 향락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기쁨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다.

(9) 그리스도와의 화합을 즐기고 본음을 나눌때, 우리는 무엇을 약속받게 되는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20 개역한글)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과 나눔으로써 기쁨을 갖게 된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의 빛을 소유하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생애의 모든 발걸음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해 주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 크게 나누게 해 줄 것이다. 매 발걸음은 그들을 복된 평화의 본향으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자. 이전보다 더욱 강한 소망을 갖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사무엘상 7:2).

(10)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축복을 항상 우리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하는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 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 4:9 개역한글)

여호와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모든 부드러운 자비를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생생하게 간직하자. 그분께서 씻어 주신 눈물과 그분께서 견디도록 도와준 고통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공포와 염려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을 지나는 동안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 줄 것이다.

(11) 우리가 겪게될 시험과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 개역한글)

우리는 세상이 끝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앞을 바라봄과 동시에 뒤를
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무엘상 7:12, 신명기 33:25).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리 만큼
강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찾는 그 자리에서 착수하자.

(12) 우리가 겪는 시험이 힘들다고 느껴
지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실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개역한글)

(13)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를 극복한
이들은, 어떤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34 개역한글)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하늘의 문들이 활짝 열려질 것이다.
영광의 왕의 입술에서 축복이 훌륭한
음악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본향, 악한 자들이 전혀 없는 본향으로 영접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단을 정복하고 완전한 품성을 이룬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죄를 짓고 싶은 모든 욕망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거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태양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그들을 통하여 또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게 될 것이고 천사들과 함께 그분의 축복을 나누게 될 것이다.

(14) 선과 악의 위대한 싸움이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26 개역한글)

아름다운 하늘 본향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태복음 16:26). 사람이 지금은 가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때에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부보다 더욱 큰 부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은 큰 가치가 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다. 이 기쁨은 하늘의 천사들에게 거룩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 준다.

나는 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믿게 된다면, 나느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예전에 받은 축복을 항상 내 마음에 두어 현재에도 앞으로 그분의 인도에 의심을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시련을 겪는 동안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평안과 인도에 감사하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이 성경 공부 책자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 질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신
그분께 감사드리며, 그분께 “잘했노라 내
충실한 종이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집에 환영하노라”라는 멋진 말을 듣게 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겠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illegible]